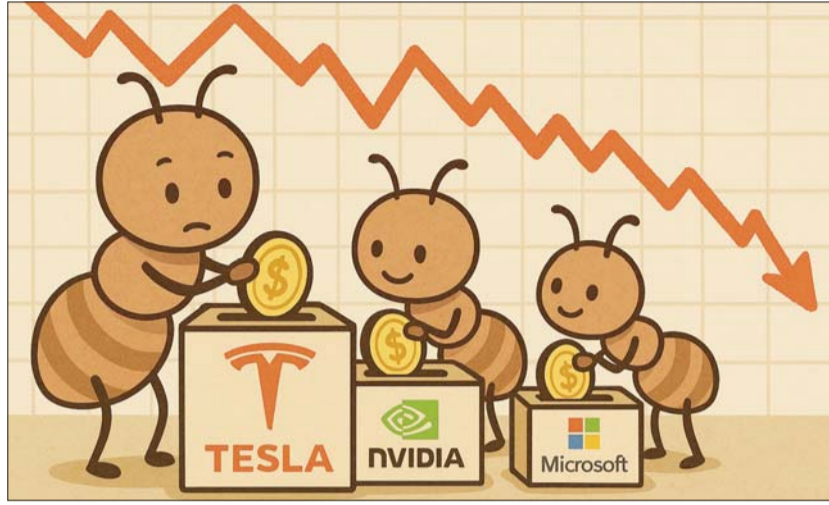


“서학개미, 美 빅테크주 편식에 ‘날벼락’… 분산투자 중요”

美 상호관세에 빅테크주 ‘휘청’ 서학개미 보관금액 1위 테슬라 1분기 36% 손실 등 관련주 급락 “투자자, 연간 40% 평가손실 후 원금 회복에 최소 8.6년 걸려 과도 편중 줄이고 분산투자”



ChatGPT로 생성한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이미지.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는 바람을 설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끈다’라는 뉴스에 테슬라 주식을 사면서다. 한 번에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은행빚을 내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석 달 새 30% 넘게 손실을 보고 있다. A씨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요직에 앉으면 테슬라 주가가 급등할 줄 알았다”라며 “무턱대고 투자한 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올 봄 잠 못 드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과감히 ‘기술주’에 베팅했다가 손

실을 보고 있어서다. 추가 손실도 예고됐다.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휘청이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학개미들의 미국주식 보관금액 1위는 테슬라로 178억8436만달러로 2위인 엔비디아(100조7433만달러) 대비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

음으로 애플(41억8433만달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29억4352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28억4354만달러) 등이다. 이외에도 보관금액 상위 10위 내 대부분이 기술 관련 종목으로 이뤄져 있다.

개미들은 관세 전쟁에도 아랑곳 않고 ‘M7(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아마존·알파벳·메타·테슬라)’ 등 미국 기술주를 사들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올해 1분기 미 증시 순매수액은 113억2176만달러에

달했다. 서학개미가 기록한 미 증시 순매수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하지만 웃지 못하는 개미들이 많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1분기 기준으로 S&P500 지수는 4.6%, 나스닥지수는 10.4% 각각 하락했다.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는 1분기에 19.3% 급락했다. 경쟁업체인 브로드컴은 27.8% 폭락했다. 대표적 기술주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11% 안팎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주도하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36%나 빠졌다.

트럼프가 상호관세에 서명한 2일(현지시간) 시간의 거래에서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인텔 등이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매그니피센트(M7)와 관련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등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한 타격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학개미들의 빅테크 편식에 한국은 행까지 나서 경고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국 해외투자분석팀이 한은 블로그에 올린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투자가 필요할 때’라는 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주식 솔림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개인투자자의 손실도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작성자는 한은 해외투자분석팀의 이재민 과장, 장예진 조사역이다. 이 팀장은 “2022년과 비슷하게 연간 -40% 수준의 평가손실을 본 뒤 개별 종목 대신 S&P 500 추종 ETF에 투자하기로 하면 원금 회복에 최소 8.6년이 걸린다”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이익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M7, 레버리지 ETF 등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줄이고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美장 거래 감소에도 ‘선방’… 증권사, 영업익 58% 급증

주요 증권사 5곳 1분기 영업익 1.6조 국내 주식거래 하루 18.4조, 15% ↑ IPO 활황도 실적개선에 힘 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가 감소했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 거래 대금 증가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주요 증권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5616억원으로 전 분기(9870억원) 대비 58.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식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국내 주식 거래대금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주식의 매수 및 매도 결제액을 합한 거래대금은 1510억4792만 달러로 전 분기(1775억3005만 달러) 대비 14.91% 감소했다. 미국 주식 보관액도 3월 말 기준 965억4285만 달러로 집계되며 지난해 말(1121억181만 달러) 대비 13.87% 줄었다.

반면, 지난해 부진했던 국내 증시는 올해 초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8% 증가했다. 대체거래소(ATS)까지 포함하면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전 분기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2월 국내 증시 회복세가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활황도 증권사 실적 개선에 힘을 실었다. 1분기 IPO 공모 규모는 약 1조86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3.7% 늘었다. 1분기 채권 평가이익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국채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9bp(1bp=0.01%p), 4bp 하락했으며, 카드채(3년, AA+)와 기타 금융채(3년, AA-) 금리도 각각 13bp, 15bp 내려가며 스프레드가 축소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뿐만 아니라 국채 기반 헤지 포지션에서도 일정 부

분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증권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면서, 점진적인 시장 환경 개선이 증권사들의 실적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업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투자자산 손상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넥스트레이드(NXT) 거래 종목 확대가 마무리되면서 2분기에도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수신 기반 확대를 통한 투자은행(IB) 및 트레이딩 부문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집무실에서 ‘우리WON MTS’ 출시 직후 직접 앱을 설치하고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투자증권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 ‘우리WON MTS’ 홍보대사로 나서

우리투자증권은 임종용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새롭게 출시한 우리투자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우리WON MTS’ 홍보대사로 나섰다 3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31일 ‘우리WON MTS’ 출시 직후 직접 앱을 설치하고 고객 관점에서 주요 기능들을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고객들이 손쉽게 필요한 기능을 찾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폭넓게 탑재해 우리WON MTS의 장점을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임 회장은 그룹 임직원들을 향해 “우리WON MTS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먼저 이용해보고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3월 19일 투자매매업 본인가로 기업금융(IB) 사업에 나선 데 이어 본격적인 리테일 사업을 위해 ‘우리WON MTS’를 출시해 ‘IB와 디지털이 강한 종합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

관세전쟁 비껴간 삼성바이오, 주가 ‘날개’ KRX, 6월부터 파생상품 야간거래 도입

전일대비 6% 오른 111만3000원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코스피를 덮친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우려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6% 오른 111만3000원에 마감했다.

이날 강세는 의약품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차후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역별 매출실적을 보면

작년 기준 65%가 유럽향이며 미국향 매출비중은 약 25%에 불과하다”며 “현재 공급 계약에 따르면 관세는 대부분 고객사 부담항목이어서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적 기대감도 크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매출액이 1조1713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난 것이다. 영업이익은 4014억원으로 81% 급증할 것으로 봤다. 시장 컨센서스(매출액 1조1594억원, 영업이익 319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대환 기자 kdh@

1시간 연장하고 거래상품 10개 확대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 초 파생상품 시장 자체 야간거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 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거래 가능 상품도 10개로 확대된다.

앞서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도입과 관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도입을 위해 전 회원사 대상 사전설명회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야간거래 전산시

스템 구축·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야간거래 모의시장 운영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거래소는 현재 해외거래소(Eurex)와 연계해 야간거래를 운영 중이지만,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정규거래(주간거래)와 다른 계좌를 사용하고,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회원사를 통해 참여하는 등 거래 불편이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정규거래와 동일한 거래제도를 적용 후 운영하는 ‘자체 야간거래 운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